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이 상 익**

국문초록

전이현상은 정신분석은 물론 정신치료 등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이현상의 의미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론 등에는 학파에 따라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이에 대한 심층심리학적 연구는 정신분석학파의 이해방식에 주로 경도되어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정신의 지평을 더욱 넓고 깊게 파악하고 있는 분석심리학적 이해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전이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이의 개념을 융의 관점을 중심으로 융 이전과 융 이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전이현상이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 전이 현상에 대한 진정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융이 ‘전이의 심리학’에서 사용한 ‘현자의 장미원’ 목판그림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융이 언급하지 않은 후반부의 적절한 해석을 포함하여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중심 단어 : 전이현상 · 분석심리학 · 이해.

들어가는 말

전이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비롯하여 많은 학파의 정신분석과 정신치료

접수일 : 2014년 9월 16일 / 심사완료 : 2014년 10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6일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전이란 과거 유년기에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감정, 욕구, 태도, 환상, 방어 등이 현재 상황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즉 과거에 겪었던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를 현재에 다시 재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전이의 개념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다.¹⁾²⁾

한편, 분석심리학에서는 전이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보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나 원형론, 자기실현 등의 개념이나 꿈의 분석이나 종교와 연금술에 대한 관심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하트는 자신의 과거 취리히에서의 수련과정 중에 전이가 실제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데, 이는 분석적 관계가 전체성으로의 변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토대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바로 전이의 그 깊은 의미와 신비함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³⁾ 이러한 입장이 무리 없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용 자신이 ‘전이의 심리학’이라는 제목 하에 연금술 서적에 나타나는 상징적 과정으로 전이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에, 그 내용의 요해가 어렵다는 점만으로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무엘스는 후기 용 학파라는 개념으로 고전학파, 발달학파, 원형학파로 분류하면서, 그 주요 기준의 하나로 전이와 역전에 대한 임상적 비중을 제시하였고,⁴⁾ 최근에는 근본주의자-고전적-발달적-정신분석적 *fundamentalist-classical-developmental-psychoanalytic* 이라는 일종의 스펙트럼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⁵⁾ 런던을 중심으로 하고 정신분석과 상호교류를 하는-사무엘스의 개념으로 발달학파에 속하는-일단의 분석심리학자들이 특히 전이의 임상적

1) 황익근(1992) : “정신분석에서 전이개념의 변천”, 《정신분석》, 3(1) : pp3-12.

2) 강은호, 유범희(2010) :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서 전이의 발생과 해결”, 《신경정신의학》 49Suppl1 : S104-S109.

3) Hart DL(2008) : “The Classical Jungian School”,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2nd Ed,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p102-103.

4) 사무엘스 A(김성민, 왕영희 옮김)(2010) : 《C.G. 융과 후기 용 학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p49-58.

5) Samuels A(2008) : “New Developments in the Post-Jungian Fiel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2nd Ed,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p8-13.

의미와 실제적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융의 전이의 개념을 고찰하였다.⁶⁷⁾ 이중 스타인버그는 융이 긍정적 전이의 성애적 부분에 심각한 역전이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데,⁸⁾ 환자의 전이에 대해 감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성애적인 전이에 대해 그러했으며, 이런 점이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전이의 개인적 영역의 중요성을 줄이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고 하였다. 또한 스타인버그는 융이 “나는 오직 가벼운 전이가 일어나거나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기뻐다. 그 때 개인에게는 문제가 덜 가게 되고 다른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요인에 만족하게 된다.”⁹⁾고 한 것을 바로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전이에 대한 융의 입장에 대해 오해가 있어 보이고 진정으로 깊은 의미에서의 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담자의 수준에서나 일상적인 삶의 코드로 볼 때 전이의 발생과 이의 관계적 인식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념 정리 및 본질에 대한 이해와 대응 자세 등의 정립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치료적으로나 결국은 이론적으로도 전이의 문제는 무의식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양상의 하나이고 특히 치료의 장에서 분석가와 피분석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기에 너무도 중요한 정신현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분석심리학적으로 전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이 전이의 이해의 핵심으로 본 융합의 비의에 대한 고찰로 확장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시작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이현상의 정의를 비롯한 개념적 정리에 한정하여 일차적인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이의 개념을 융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융 이전과 융 이후의 관점에 대해서도

6) Fordam M(1974) : “Jung’s Conception of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19(1) : pp1-21.

7) Steinberg W(1988) : “The Evolution of Jung’s Ideas on The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33(1) : pp21-37.

8) 사비나 스피라인 Sabina Spielrein의 사례를 예로 든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제 분석심리학회 잡지 2001년도 1권이 Minder B(2001) : “Sabina Spielrein, Jung’s Patient at The Burgholzli”, *J Analyt Psychol*, 46(1) : pp43-66. 을 비롯하여 사비나 스피라인의 특집호로 꾸며졌고 2004년도 바르셀로나 국제 분석심리학회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역사적 고증이 되지 못한 상태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9) Jung CG(1946) : CW 16,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172-173.

고찰하고 전이현상의 분석심리학적 이해방식의 특징적 측면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전이의 개념

1. 용 이전의 관점

전이의 개념은 분석적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심리적 질환의 치료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19세기의 최면술사들도 강조하였으나, 피에르 자네는 치료과정에서 라포르^{rapport}의 역할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의식되지 않고 치료시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최면술사에게 향할 수 있는 정열적 사랑, 미신적 테러와 복수 또는 질투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적시하였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환자가 그에 따른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지 조언을 주었다.¹⁰⁾

프로이드의 전이과정에 대한 생각도 19세기 말의 최면에 대한 토론에 근거를 두고 신경학적 개념에서 시작하여 처음으로 전이의 개념이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환자에게서 치료자로 잘못된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하였다.¹¹⁾ 1912년에 프로이드는 전이에 대하여 사랑에 대한 욕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예상된 리비도가 의사에게 부착된다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며 요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¹²⁾ 그리고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전이를 저항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분석적 치료에서 전이는 우선적으로는 거의 일정하게 저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는 전이의 강도와 지속성을 저항의 효과이자 표현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¹³⁾ 이후에 프로이드는 의사가 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환자에게 그의 감정이 현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의

10) Ellenberger H(1970) : *The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Basic Books, New York, p374.

11) Makari GJ(1994) : “Toward An Intellectual History of Transference 1888-1900”, *Psychiatr Clin North Am*, 17(3) : pp559-570.

12) Freud S(1912b) :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S.D. XII*, The Hogarth Press, London, p100.

13) Freud S(1912b) : 앞의 책, p104.

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이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로써 환자의 반복을 기억으로 변환시키고, 치료의 장애가 되는 전이를 비밀의 방을 여는 가장 좋은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또한 프로이드는 분석기법에 대해 권고하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친숙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특히 전이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의사는 그의 환자에게 불분명해야 하며, 거울처럼, 단지 자신에게서 보여진 것만을 환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결국 프로이드는 전이가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에도 프로이드는 전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였는데, 히스테리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프로이드는 “전이는 분석과정 중에 깨어나 의식화 된 경향성과 환상의 새로운 편집이거나 전송인데, 그 중만의 특징적으로 것으로, 의사를 이전의 인물로 대치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총체적인 심리적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데 과거에 속한 것으로가 아니라 현재의 의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우며 치료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이에 대한 다양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신분석은 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전이의 존재에 대해 치료자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전이는 치료에 장애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그래서 전이가 치료에 저항으로 나타날지언정 전이 없는 분석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피하지 말아야 하지만, 전이가 분석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분석과 별개로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이는 분석에 의해서 단지 들추어지고 고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⁸⁾ 결국 전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면서 최면술의 암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전이를 다루어 저항에서 치료도구로 바꾸는 분석기법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강조

14) Freud S(1917) :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S.D. XVI, The Hogarth Press, London, pp443-444.

15) Freud S(1912a) : *Recommendations to Physicians Practicing Psycho-Analysis*, S.D. XII, The Hogarth Press, London, p118.

16) Freud S(1905) : *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S.D. VII, The Hogarth Press, London, p116.

17) Freud S(1905) : 앞의 책, pp116-117.

18) Freud S(1925) : *An Autobiographical Study*, S.D. XX, The Hogarth Press, London, p42.

하였다.¹⁹⁾

이후의 정신분석학파의 분화와 발전에서 전이의 개념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 보면, 정신분석학파내에서도 전이의 정의나 전이의 치료적 사용 등에 대한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지만 전이와 관련하여 논점이 되는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전이가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분석가나 분석과정의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2)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유도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치료적이거나 정당한가,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3) 전이는 과연 과거의 산물인가 아니면 현재의 환자 상태의 드러남인가? 즉 현재에 드러난 과거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여기의 환자의 상태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4) 전이는 분석상황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일반적인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곧 세부학파에 따른 차이와 각 개인의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추후 용의 관점도 이러한 면에서 점검해 볼 수 있겠다.

2. 용의 관점

용이 전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1912년도 포덤Fordham 대학의 강의 내용을 엮은 ‘정신분석의 이론’*The Theory of Psychoanalysis*과 1913년도의 로이 박사와의 서신교환에서 로이 박사의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정리한 ‘정신분석의 몇 가지 중요한 요점’*Some Crucial Points of Psychoanalysis*을 시작으로 1921년의 ‘제반응의 치료적 가치’*The Therapeutic Value of Abreaction*와 1926년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정신치료나 꿈과 관련된 내용에서 전이에 대한 의견이 표현되기는 하지만 전이와 관련하여 용의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곳은 1935년의 타비스톡 강의에서 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과 용이 선언적으로 제시한 1946년에 발행된 ‘전이의 심리학’이다. ‘전이의 심리학’에서 밝혔듯이 이전의 저작인 ‘심리학과 연금술’(1944), 그리고 이후 본인의 연구를 집대성한 ‘융합의 비의’(1946)가 결국은 ‘전

19) Freud S(1925) : 앞의 책, pp42-43.

이의 심리학'의 전편과 후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저작은 융의 말년의 것들로 깊이 있는 경험과 충분한 성찰 없이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전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후의 역작들로 떠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중요성은 입증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개념의 정리를 위해 타비스톡 강좌를 중심으로 '전이의 심리학'의 도입부의 서론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융은 타비스톡 강의의 첫 시간에 두 개의 주제를 다루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무의식의 구조와 내용이고 또 하나는 무의식적 심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주로 꿈 분석, 단어연상검사, 적극적 명상을 염두에 두었다.²⁰⁾ 그러나 네 번째 시간의 마지막에 나온 '다음 시간에는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제안에 대해 마지막인 다섯 번째 시간에 청중의 영향을 확인하고는 전이의 심리는 무엇이고 전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해 이야기 하였는데 요약하여 살펴본다.²¹⁾²²⁾

1) 융은 우선 전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전이는 프로이드가 만든 말로서 어색한 집착 *awkward hanging-on*, 즉 일종의 집착적 관계 *adhesive relationship*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인 *Übertragung*의 번역어이다. *Übertragung*은 문자 그대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르는 것을 의미한다. *Übertragung*은 은유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Übertragung*은 무언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전이와 투사 이 두 개념을 함께 묶어서 전이는 투사의 특수경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전이를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즉, 전이의 심리학적 과정은 투사라는 보다 일반적인 과정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며, 어떤 종류이건 주관적인 내용을 대상에게 옮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투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가서 투사기제가 의지행위가 아니며 투사는 의식에 의해 또는 의식적 자각에 의해 파괴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사이며 정서적이고 강박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투사된 내용

20) Jung CG(1935) : C.W. 18, *The Tavistock Lectur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6.

21) Jung CG(1935) : 앞의 책, pp135-167.

22) 융 CG(홍성화 옮김)(1986) : 《분석심리학 C.G. Jung의 Tavistock강의》, 교육과학사, 서울, pp181-222.

과 매어진 정서를 통한 주체와 대상사이의 역동적 관계가 곧 전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서는 언제나 조금은 전염되는데 여기서 역전이 발생하고 결국은 상호투사 *mutual projecting into each other* 즉 공통무의식이 하나로 결합된 원시심리의 특성인 신비적 참여 *participation mystique*의 상태로 되어 분석은 파국으로 끝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의사의 자기분석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결국 융은 전이의 정서적 특성 및 전염성과 의사의 측면에서의 역전이의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상호투사의 신비적 참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정확히 말해 서로가 상대방의 무의식에 전염되는 상태”의 발생 가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사의 자기인식과 상황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이의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 설명하였다. 프로이드의 정의의 영향으로 전이는 성애적 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성애적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전이지만, 성애적 전이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전이는 곧 투사의 일종이기에 모든 활성화된 무의식의 내용은 투사 즉 전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이의 내용이고 전이의 강도가 강할수록 전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이의 강도는 환자에게 속한 정서이기에 전이가 해결되면 전이에 낭비되던 보물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전이의 내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전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이의 유지가 야기할 부정적 측면과 전이의 해결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나중에도 나오듯이 융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방편이 있고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해 나가는 구체적 연구방법을 확립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이의 발생과 개인적 측면을 통해 무의식의 유아기적 측면과 성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해석하려는 정신분석의 측면에서는 전이가 중요한 도구일 수는 있겠으나, 융이 주장하는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전이를 이용한 치료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분석과정 중에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전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이를 통하여 치료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환자의 전이만이 아니라 의사의 역전이와 상호 투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곧 융의 ‘전이의 심리학’에서 보이는 4위의 관계로 확대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이의 원인론에 대해 “전이는 저절로 생긴 누가 유발시키지 않은 반응이다. 일종의 첫 눈에 반한 사랑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이는 사랑이 아니며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이를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설명으로 최면 암시치료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에 해당하는 정서적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무의식적 보상반응으로, 즉 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사의 태도에 대해 강조하였다. 즉, 바른 태도를 가지고 환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전이 때문에 받는 고통을 훨씬 적게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용이 전이로 인해 또는 상호투사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용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한다 해도 전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입니다만 관계는 없고 전이만 있는 나쁜 형태의 모든 전이를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색정적 *auto-erotic*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성에 간혀 전이저항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에 간혀 있고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무의식적인 여자 분석가의 예를 들었다. 즉 그녀의 맹점이 남자환자의 강력한 전이를 유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용에게도 전이를 보이게 되었는데 굳이 이른 해석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조용히 꿈을 보면서 정점이 다가오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예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설명으로 “결국 전이의 또 다른 이유는 분석가와 환자가 서로 모르고 전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로서 용은 전이에 대해 환자와 분석가의 관계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석가가 신경증 상태일 때 유발된다고 하면서 분석가가 최대한 자신에 관해 많이 또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치료자와 환자의 올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이는 언제나 방해물이다. 전이는 결코 이점이 아니다. 여러분은 전이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설명으로 나쁜 전이의 발생이유로 분석가가 환자를 선동하여 전이를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전이가 유용하고 꼭 필요한 치료부분이라고 믿는 이유를 나는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전이를 의식적으로 일으키어 치료하는 분석가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환자의 예를 들면서 “전이는 병이다. 전이

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인은 절대로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까지 강하게 환자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투사가 필요 없듯이 전이도 필요 없고 전이는 치료와 관계가 없으며 투사를 의식화할 때 해결되듯이 전이도 의식화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이는 적으면 적을 수로 좋고 분석 자료는 전이가 아니라 꿈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발된 전이는 일종의 속임수이기에 분석은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이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원형적 내용에 대한 감염에 따른 치료자의 자아팽창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염에 중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전이의 치료에 대해 어렵고 복잡한 주제라고 밝히면서도 전이는 분석가가 다른 투사를 다루듯이 해결되어야 하고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4단계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에게 전이의 개인적 내용과 비개인적 내용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자각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상의 투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충분히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전이가 남아 있다면, 둘째, 개인적 내용과 비개인적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적 투사는 의식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비개인적인 투사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능한 한 비개인적 상을 분석가에게 투사하지 않도록 투사행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투사내용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형은 강력한 결정적인 힘 이기에 개인의 이성이나 지성에 머물지 않고, 밖의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원형의 엄청난 역동적 힘 때문에 세 번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분석가와 맺는 인간관계를 비개인적 요소와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개인적 인간적 반응이 진정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원형상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분석가에게 비개인적인 가치의 투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종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된 비개인적인 가치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네 번째 단계로는 비개인적 상의 객관화를 제시하고 이것이 개성화과정의 본질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의식을 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서, 자신의 밖에 있는 요소가 인간이든 개념이든 환경이든 간에 자신밖에 있는 요소에서 자신의 행복 심지어는 자신의 삶까지 보장 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은 인간이 보물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동양의 수행의 목표이며 또한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상징으로 비개인적인 가치를 더 이상 상징화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인이 비개인적인 상을 객관화하고 비개인적인 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치료자는 분석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금술이 곧 마음을 갖고 치료하는 의사의 일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공상fantasy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연금술작업에서 이루어진 명상imagination의 적극성과 목적적 창조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서 명상imagination의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림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만다라를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사실 꿈을 분석하고 집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좀 더 의식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찾게 되는데, 적극적 명상은 쉬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종교적 방편이나 명상, 국선도 등의 다른 방법론을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모두 역사적 근거와 의미가 있는 방법론들이지만 분석심리학의 정수를 맞보려면 적극적 명상의 경험과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용이 ‘전이의 심리학’의 머리말에서 “독자들은 이 논문에 전이현상에 관한 임상적인 기술이 없어서 아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현상의 지식을 전달해야 할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임상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²³⁾라고 밝혔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도 특별히 자세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없다.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히스테리성 신경증 환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원형적 전이의 발견과 그 의미에 대해 소개한 것이 그 중 자세한 것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²⁴⁾²⁵⁾

[이 환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매우 좋은 관계였다. 그런 경우 흔히 지적 기능

23) 용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용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숲 출판사, 서울, pp168-169.

24) 용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p19-31.

25) 이문성(2014) : 전이와 역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2014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2014년 4월 10일(목),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

이 발달하게 된다. 이 환자는 뒤에 철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되었다.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것과 등가적인 감정적인 유대가 이에 적합한 다른 남성에게 일어나는 경우, 아버지와의 감정적 유대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감정은 이에 적합하지 않은 남자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의사는 본의 아니게 환자에게 구세주가 되며, 신과도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제 삼자가 보기에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과대평가를 받는다. 성공적인 전이가 일시적으로는 신경증 증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다만 환자의 갈등이 의사에게도 옮겨져 있을 뿐이고 치유 그 자체는 아니다. 나에게 전이를 일으켰고 나는 대단한 구세주가 되어 버렸다. 그런 나를 체념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환자에게 몹시 거슬릴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전이 상태에서 ‘정신분석’이론으로 해석해줌으로써 강력한 의지의 결단으로 뼈아픈 희생을 감수하는데 성공한다면, 병을 앓던 환자가 사실상 치유의 상태로 건너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정신분석’이론으로 전이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자의 꿈을 보기로 했다. 대다수의 꿈은 의사라는 인물에 관련되어 있었다. 즉, 꿈에서 행동하는 인물들은 틀림 없이 꿈을 꾸는 그녀 자신과 그녀의 담당 의사였다. 그러나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크기로 보이는가 하면, 때로는 대단히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닮았는데, 다음에 나오는 꿈처럼 이상하게 자연과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실제로는 체구가 작았다) 그녀와 함께 밀밭으로 덮여있는 언덕 위에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았고 그는 거인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그녀를 땅에서 들어 올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두 팔로 껴안았다.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고, 밀밭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아버지는 그녀를 팔로 껴안아 흔들어 주었다.” 이런 꿈과 이와 비슷한 꿈들에서, 나는 마치 그녀의 무의식이 내가 그녀의 아버지 겸 연인이라는 사실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환자 자신은 자기의 전이가 환상이라는 것에 의심 없는 통찰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적어도 내가 반쯤 신과 같은 아버지-연인으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과 나의 실제의 모습을 최소한 머리로는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꿈은 분명 의식에서 의식적 비판을 뺀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의식적 비판(정신분석적 해석)은 꿈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

비판에 반하여, 의사라는 개인을 초인적인 속성들로 꾸미려는 경향이다. 의사는 엄청나게 나이를 먹었고 실제의 아버지보다 체구가 더 크며, 마치 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무의식은 의사라는 개인에게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던 저항은 사실은 심오한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비판적인 나의 여자 환자에게는 이 새로운 가설이 잘 납득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겸 연인이며 그와 같은 역할로서 이상적인 갈등해결을 나타낸다는 이전의 견해가 그녀의 기분에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매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성은 이 새로운 가설의 이론적 가능성을 통찰할 만큼 충분히 명석했다. 꿈은 의사라는 인물을 더욱 더 크게 부풀리기를 계속했지만, 마침내 그녀의 전이가 지하로부터 붕괴가 됨을 지각하였다. 그녀의 의식에서는 아직도 전이에 매달리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깊어졌다. 이윽고 나와 헤어질 때가 왔지만 그 헤어짐은 전혀 파국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이별이었다. 꿈은 의사라는 인간적 인물을 초인간적인 크기로, 즉 바람이기도 한 거대한 태고의 아버지, 꿈꾼 사람이 그 보호하는 팔에서 마치 젓먹이 아기처럼 쉬고 있는 그런 아버지, 즉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서 꿈꾼 이에게 살아있는 영향을 끼친 전적으로 원시적인 진짜 신상으로 부풀렸다. 무의식의 압박은 겉보기에는 사람을 붙잡을 뿐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꿈의 목적의미를 이해하여 전이와 저항이 해소되었다.]

여기서도 융은 사례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주로 사례의 내적 상이나 환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결국 융의 관심은 사례에 나타나는 콤플렉스와 원형적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꿈과 적극적 명상의 상에 대하여 신화와 종교와의 비교를 통한 확충이 중요시 되었다.²⁶⁾ 융이 치료과정에서의 전이의 발생과 그 뒤에 있는 개인의 뿌리와의 연결로서의 원형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예로 들기도 한 사례인데²⁷⁾ 융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융의 관점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이 ‘현자의 장미원’의 목판

26) De Moura V(2014) : “Learning from the patient: The east, synchronicity and transference in the history of an unknown case of C.G. Jung”, *J Analyt Psychol*, 59 : pp391-409, p392.

27) Jung CG(1977) : *C.G. Jung Speak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343-347.

그림으로 ‘전이의 심리학’을 설명한 부분의 충실한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도입부에 해당하는 서론에서 개념적인 내용만 정리하여 살펴보았다.²⁸⁾²⁹⁾

1) 전이는 자연적인 투사이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치료자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전이의 중요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 효과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2) 전이는 관계의 일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정신적 감염의 위험성과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치료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 치료자는 이미 자신의 운명적 경향성으로 인해 그 직업을 선택하였고, 따라서 환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이 곧 치료의 근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긍정적 전이의 중요성과 대극의 현상 및 대극의 합일의 의미를 중요시 하였다.

3) 전이되는 내용은 대개 본래는 부모나 다른 가족의 성원에게 투사되었던 것으로, 성애(에로스)적 측면이나 본래의 성적인 성질이 없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의심할 바 없이 근친상간적 성격이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프로이트가 근친상간설을 내놓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다.³⁰⁾ 그리고 이러한 프로이트의 발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무의미 하지만 그 해석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실제적 근친상간적 본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병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들의 방식으로 권력에의 의지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삶의 불가능한 과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리비도의 유아 수준으로의 퇴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상징적인 것으로 즉, 인간정신의 역사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근친상간의 원형이 재 활성화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각각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의미가

28) Jung CG(1946) : CW 16,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164-201.

29) 융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p167-213.

30) 융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p184-185.
“그런 내용이 의사에게 즉의존적으로 전이되어도 이런 성적인 성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로부터의 그러한 투사로 말미암아 이 특이한 가족적-근친상간적 분위기에 끼어들게 된다. 이로써 어쩔 수 없이 의사와 환자를 극도로 괴롭히는 비현실적인 친밀감이 생기며, 이것은 양측에서 저항과 회의를 일으키게 된다.”

제시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각 사례에서 어떻게 파악되는가이며, 결국 사례의 본질, 치료의 단계, 환자의 통찰력 및 판단의 성숙도에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³¹⁾

4) 무의식적 동일시, 다른 말로 신비적 참여가 일어나면서 니그레도nigredo의 상태, 원초적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의식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주로 나중에서야 결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로 꿈에서 엿볼 수 있기도 한데, 자기로 상징되기도 하는 아이의 잉태나 출현 등으로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5) 무의식적 배열이 일어나게 되면, 의식적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는 연금술적 비유가 적절한데, 메르쿠리우스, 원초적 물질 등과 신의 가호로Deo concendente 등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메르쿠리우스는 통합된 이중적 본질로서 의식적 작용을 통해 전체 인격에 통합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무의식의 의인화로 괴물과 지혜와 같은 모순적인 이중성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부터는 현 술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비유로 종교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강조하였다. 의식이 발달하여 의지와 힘을 내세우는 시점에서 무의식의 영원한 진리는 어떻게 이해되고 조우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신경과학적으로 환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뇌prefrontal cortex의 발달이 지속되면서 뇌의 다른 영역과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 사이에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계속되어야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전뇌whole brain의 조화로운 사용이 가능하여 전뇌prefrontal cortex의 발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후 종교적 태도의 강조와 새로운 인식의 발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즉 내면에 집중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이 기

31) 그러나 궁극적으로 용이 중요시 한 것은 자신의 관점으로, 즉 ‘전체성’을 향한 충동의 상징적 모습으로 이해하였다. “근친상간은 자기고유의 존재와의 합일, 개성화, 자기화를 상징하며, 그 고도의 중요성 때문에… 때로는 거의 섬뜩한 매혹을 보이고 있다… 근친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결속하고자 하는 리비도에 해당되는데, 친족 리비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근친간에 수반되는 그리움은 ‘개성화’에로의 강한 열망이다… 결국 족내혼성 요구가 마침내 투사를 기도하지 않고 인격 요소들의 내적 결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영적 결혼’의 차원에서 비투사적 내적 체험으로서 지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영적 결혼’은 물론 꿈에서 오래전부터 넷으로 나누어진 만다라로 표현되며… 개성화 과정의 목표, 즉 자기Self를 의미하는 것 같다.” 용 CG(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p231-249 참조.

대되는 것인데, 특히 치료자는 자신의 꿈에서도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융에게 있어서 전이의 의미는, 그 이해를 위해 ‘심리학과 연금술’로 시작하여 ‘전이의 심리학’에서 ‘융합의 비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결국 개인의 문제에 닫혀 있는 사람을 치료자의 전 인격으로 진정한 정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개성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즉 전이를 유발하거나 이용하는 치료가 아니라 전이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힘든 과정을 극복해나가는 치료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이는 결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근원적인 만남에 따른 요청인 것이고 여기서 치료자는 최소한의 의식적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헤쳐 나가고 환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3. 융 이후의 관점

폰 프란츠는 전이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평을 요청 받고, 본인이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어렵게 승낙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융이 ‘융합의 비의’의 집필을 끝내며 “내가 이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믿지 않으며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내가 더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³²⁾ 여기서 전이의 문제는 융합의 비의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인간문제의 근원적 영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융의 ‘전이의 심리학’의 심오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융이 전이의 심리학의 이해를 위해서는 ‘심리학과 연금술’이라는 자신의 저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 점과 ‘전이의 심리학’의 완성을 위해 ‘융합의 비의’를 저술하였다는 술회에서도 확인된다.³³⁾

폰 프란츠는 전이의 이해를 위해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였는데 1) 고태적 일체감 *archaic identity* 2) 상호 투사 *mutual projection* 3) 개인적 관계 *personal relationships* 4) 영원한 운명적 연대감 *fated togetherness in “eternity”* 이다.³⁴⁾ 그리고 폰 프란츠는 전이 현상과 더불어 치료과정 또한 이들 4가지 측면

32) Von Franz ML(1993) : “Some Aspects of The Transference”, *Psychotherapy*, Shambhala, Boston & London, p238.

33) 융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숲 출판사, 서울, pp19-31.

34) Von Franz ML(1993) : “Some Aspects of The Transference”, *Psychotherapy*, Shambhala, Boston & London, p238.

의 단계로 이해하였다. 즉 치료시작으로 상호투사의 측면이 시작되면서 전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곧 고태적 일체감의 측면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호투사에 대한 지나치게 이른 관여나 해석을 지양하면서 고태적 일체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서서히 자연스럽게 투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치료 시작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다. 개인적 관계의 측면은 치료 시작부터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서서히 발달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소로 그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특히 여기에서부터 치료자 자신의 성숙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운명적 연대감의 측면은 결국 자기Self의 경험과 관련되는 것이며 신성혼과 연금술의 융합의 비유로 설명되는 관계라고 보았다. 이 차원에서는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넘어 전체성의 연대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상호 개성화 *mutual individuation*의 신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로스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융이 불링겐에 그려 놓은 자기의 상징인 필레몬을 ‘사랑하는 자’ *the loving one*이라고 한 이유라고 하였다. 결국 전이라는 강렬한 열정 뒤에는 자신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강력한 충동과 열망이 있다고 보았다.³⁵⁾ 이들이 분석심리학을 에로스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³⁶⁾ 그리고 사무엘스가 융이 정신분석과 정신치료에 영향을 주고 융의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된 여러 가지 측면을 소개하면서 지적하였듯이, 관계적 정신분석 *relational psychoanalysis*에서 무의식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두 사람 심리나 간주관성을 강조하면서 융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이다.³⁷⁾

그 외에 융 이후 전이의 개념에 대해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거론한 대표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마이어는³⁸⁾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분석적 관계를 집단적 무의식 차원에서의 투사와 전이현상에 대

35) Von Franz ML(1993) : 앞의 책, pp238-254.

36) Von Franz와 Dr. Isler로 이어지는 전통에 대해 Dr. Etter가 개인적인 대화에서, 자신들의 심리학을 Eros Psychology로 자신들의 분석방식을 Individuation Analysis로 표현한 바 있다.

37) Samuels A(2008) : “New Developments in the Post-Jungian Fiel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2nd Ed,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p7.

38) Meier CA(1959) : “Projection, Transference, and The Subject-Object Relation in Psychology”, *J Analyt Psychol*, 4(1) : pp21-34.

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포덤은³⁹⁾ 융의 전이에 대한 모호한 기술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고찰을 시작하여, 총정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의미를 천착하려고 하였다. 스타인버그는⁴⁰⁾ 융의 전이에 대한 개념의 모호함과 시기적 상충성 등을 지적하면서 전이에 대한 융의 부정확한 개념정리 등에 대해 고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지만 전이의 가치에 대해서만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현상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정리한 면은 있으나 의미적으로 통찰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융의 개념을 치료적 관계나 분석적 관계로 도식적으로 설명하여 임상적으로 실제적 적용을 시도한 경우가 있는데,⁴¹⁾⁴²⁾ 일상적인 임상상황에서의 치료자-환자 관계의 다중적 작용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이현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입장의 견해

지금까지 정리해 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전이현상에 대해 분석심리학자들이 정리하고 고찰한 문헌들을⁴³⁾⁴⁴⁾⁴⁵⁾⁴⁶⁾⁴⁷⁾ 참조하여 나름대로 전이의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
- 39) Fordam M(1974) : "Jung's Conception of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19(1) : pp1-21.
 40) Steinberg W(1988) : "The Evolution of Jung's Ideas on The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33(1) : pp21-37.
 41) Jacoby M(1984) : *The Analytical Encounter: Transference and Human Relationship*, Inner City Books, Toronto, pp25-30.
 42) Fordham M(1990) : *Jungian Psychotherapy*, Maresfield Library, London, pp80-89.
 43) Wiener J(2004) :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 Contemporary Perspectives", *Analytical Psychology*, ed. By Cambray J, Carter L, Brunner-Routledge, Hove and New York, pp156-158.
 44) Samuels A(2006) :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The Handbook of Jungian Psychology*, ed. By Papadopolus RK,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177-188.
 45) Wiener J(2009) :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exas A&M University Press, College Station, pp21-26.
 46) Perry C(2010) :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New York, pp148-152.
 47) De Moura V(2014) : "Learning from the patient : The east, synchronicity and transference in the history of an unknown case of C.G. Jung", *J Analyt Psychol*, 59 : pp391-409, p395.

1) 융은 전이를 일종의 투사로 보았고, 의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선생님, 일반의, 그리고 남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하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이를 조장하는 일차적인 방법론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전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융이 전이를 일반적인 투사의 특별한 형태로 본 반면, 정신분석적인 의미에서는 전치(*displacement*)의 의미가 원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정신내적 현실과 상징 및 콤플렉스와 원형(상)들을 중요시 하는 융 심리학과 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점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투사의 자연적 특성은 곧 전이와 역전이의 상호작용적 측면으로 연결된다.

2) 융은 전이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보다는 상호작용의 일부로 보아 역전이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하였다. 프로이드가 역전이는 환자가 분석가의 무의식적 갈등을 활성화시켜 분석가가 환자와의 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가는 이를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본 반면에, 융은 역전이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교육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지만, 치료자가 환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치료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⁸⁾ 결국 융은 분석적 관계라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가 모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전이와 역전이의 현상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며 결국 치료는 이러한 관계의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고 이해된다. 이는 곧 전이의 원형적 측면으로 연결된다.

3) 융은 전이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해당하지 않고 원형적 차원에서의 전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융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관계가 끝나게 되면서, 모습이 비개인적인 자연적 경과를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남성 환자가 여성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전이가 지나가고 긍정적 전이가 시작되면서 개인적

48) “분석가가 환자의 전이현상으로 말미암은 자극을 피하고 가능한 한 환자를 멀리하려고 하면 역전이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나 오히려 치료의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강한 역전이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릴 위험성조차 있다... 역전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그렇게 장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정신, 특히 감정이란 언제나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제 3판, 일조각, 서울, p279 참조.

전이에 대한 환원적 해석이 이루지고 난 후 투사가 거두어지면서 아니마가 환자와 자기Self의 매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융의 정신치료의 단계를 예를 들면 명료화와 교육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환원적 해석이 도움이 되며 변환의 단계에서는 주관적이고 합성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과정과 그 이후에도 유아적인 것과 원형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재회하는 나선형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전이의 과거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적 측면이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4) 융은 전이를 과거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다. 즉 미래에 나타날 어떤 면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전이를 현실의 가교로 생각하여 치료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자신의 독특한 성격이 가치가 있으며 그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삶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전이와 실제적 치료적 관계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전이는 개성화 과정의 일부이며 개성화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융은 전이의 이해에서 환자가 치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을 과거의 부모나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분석가에게로 이전을 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마고를 투사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시작되는 가능성으로 보았으며, 곧 치료자의 인격과 성숙이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교육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성적인 전이의 상징적 의미를 중요시 하였고, 전이의 강도는 환자와 분석가의 이해의 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면서, 전이의 목적적 의미를 강조하였고, 전이는 투사가 거두어지면서 그 목적을 의식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긍정적 전이 또는 부정적 전이를 막론하고 전이는 곧 개성화과정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개인적 전이의 해소는 정신적 에너지의 변환을 가져오게 되면서 곧 개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전이는 개성화의 원동력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치료자의 인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융은 ‘현자의 장미원’이라는 연금술서에서 전이와 개성화의 상징을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4위의 결혼*marriage quaternio*의 개념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왜 일부에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시작된

정신분석적 입장의 전이에 대한 이해의 틀로 융의 전이현상에 대한 설명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편 전이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살펴본다면, 전이는 투사에서 시작하지만 투사로 치부하고 말 수는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융이 말하는 전이는 곧 다른 정신현상과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정신분석과는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⁹⁾

결국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전이에 대한 대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 1) 전이가 나타나면 또는 나타나는 것에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2) 부정적 전이는 되도록 빨리 해결을 한다. 긍정적 전이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 할 수도 있다.
- 3) 자연스러운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 환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다.
- 4) 원형적 전이 상황이 오면 개인적인 내용과 분리하여야 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설명한다.
- 5)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객관적 관계형성이 되도록 진행되어 근원적 사랑과 영원성의 영역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환자가 자기Self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것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자의 인격과 자세, 그리고 경험적 통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만이 환자가 왜곡된 투사의 상태에서 내적성찰의 단계를 넘어 객관화를 통해 자기실현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진정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경지의 변화를 통해 나아가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경험내지는 자기의 경험에는 구별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한 분리나 단순한 합일이 아니라, 인식하며 함께하는 관계맺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참여의 상태이지만 의

49) “프로이드는 전이의 문제를 개인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고 전이의 특징적인 본질에 원형적 성질의 집단적 내용들을 간과한다... 그러나 나의 전이문제의 처리는 프로이드와는 반대로 그 문제 외의 원형적 측면을 포괄한다. 그럼으로써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융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93 각주 참조.

식화된 참여의 상태 특히 의사의 의식화는 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전이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개성화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의사와 환자의 특성 및 주변 조건 등 여러 가지를 모두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융은 자신의 심리학이 기여한 것은 곧 자신의 주관을 고백한 것이라고 하였고,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주관을 아들러는 아들러의 주관을 표현한 것이 그들의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결국 각자의 편견을 인정한다면 하나의 객관적 심리학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환자 중에는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치료해야 하는 환자가 있고 어떤 사례는 아들러의 관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⁰⁾ 그리고 융은 “저의 문제는 역사적 과거의 큰 괴물과 수세기나 산 큰 뱀과 인간마음의 짐과 기독교의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⁵¹⁾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를 표현하였고, “어떤 사람이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철학적 머리가 되었고 세상에 상당히 성공하였고 너무나 심한 신경증은 앓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은 나의 관점에 동의한다.”⁵²⁾고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환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즉 그는 환자에 따라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또는 아들러의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프로이드는 욕망의 문제에 아들러는 힘과 권력의 문제에 적당한 만큼, 본인은 다른 차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이나 권력의 문제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즉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개인적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드도 기어코 치료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고 인용하면서 각 개인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국고전을 인용하였다.⁵³⁾ “들으려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알지 않으려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발을 그 사람의 쟁기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쟁기로 갈아야 합니다.”

50) 융 CG(홍성화 옮김)(1986) : 《분석심리학 C.G. Jung의 Tavistock강의》, 교육과학사, 서울, pp166-167.

51) 융 CG(홍성화 옮김)(1986) : 앞의 책, p169.

52) 융 CG(홍성화 옮김)(1986) : 앞의 책, p170.

53) 융 CG(홍성화 옮김)(1986) : 앞의 책, pp175-176.

나가는 말

결국 융은 전이의 관계가 아닌 실제적 관계 속에서 좀 더 의미 있고 미래 지향적인 자기실현의 과정을 같이 하는 공체험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신치료의 단계를 고백-명료화-교육-변환으로 보고 결국 신성성(누미노제)의 체험을 통한 변환 즉 자기실현을 가장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단순한 환자의 전이를 넘어서 의사-환자 관계의 대극의 합일의 과정을 통한 상호변환의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이현상을 이러한 원대한 과정의 가능성으로 이해했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심리학적 치료과정은 투사로 나타나는 좁은 의미의 전이로 시작하여 꿈의 해석으로 들어가서, 적극적 명상을 통해 진정한 관계로 거듭나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과정에서 치료적 관계로서의 넓은 의미의 전이는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깊은 경험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융이 의미하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전체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심리학적인 전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단순한 역전이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료자 원형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통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⁵⁴⁾⁵⁵⁾ 다른 한편으로는 융이 ‘전이의 심리학’에서 ‘현자의 장미원’이라는 연금술서의 목판본의 상징적 그림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융은 20개의 원본⁵⁶⁾ 중에서 10번째까지만 사용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탐색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 판본 전체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충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4) Groesbeck CJ(1975) : “The Archetypal Image of The Wounded Healer”, *J Analyt Psychol*, 20(2) : pp122-145.

55) 사무엘스 A(김성민, 왕영희 옮김)(2010) : 《C.G. 융과 후기 융 학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p411-419.

56) *Rosarium philosophorum. Secunda pars alchimiae de lapide philosophico vero modo praeparando, continens exactam eius scientiae progressionem. Cum figuris rei perfectionem ostendentibus*, Jacob(Offizin, Frankfurt a.M.)(Frankfurt a. M.)(1550), Stiftung der Werke von C.G. Jung, e-rara.ch, Zurich.

참고문헌

- 강은호, 유범희(2010) :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서 전이의 발생과 해결”, 《신경정신의학》, 49Suppl.
- 사무엘스 A(김성민, 왕영희 옮김)(2010) : 《C.G. 융과 후기 융 학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융 CG(홍성화 옮김)(1986) : 《분석심리학 C.G. Jung의 Tavistock강의》, 교육과학사, 서울.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제 3판, 일조각, 서울.
- 황익근(1992) : “정신분석에서 전이개념의 변천”, 《정신분석》, 3.
- De Moura V(2014) : “Learning from The Patient: The East, Synchronicity and Transference in The History of An Unknown Case of C.G. Jung”, *J Analyt Psychol*, 59.
- Ellenberger H(1970) : *The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Basic Books, New York.
- Fordam M(1974) : “Jung’s Conception of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19.
- Fordham M(1990) : *Jungian Psychotherapy*, Maresfield Library, London.
- Freud S(1905) : *Fragment of An Analysis of A Case of Hysteria*, S.D. VII, The Hogarth Press, London.
- _____ (1912a) : *Recommendations to Physicians Practicing Psycho-Analysis*, S.D. XII, The Hogarth Press, London.
- _____ (1912b) :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S.D. XII, The Hogarth Press, London.
- _____ (1917) :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S.D. XVI, The Hogarth Press, London.
- _____ (1925) : *An Autobiographical Study*, S.D. XX, The Hogarth Press, London.
- Groesbeck CJ(1975) : “The Archetypal Image of The Wounded Healer”, *J Analyt Psychol*, 20(2).
- Hart DL(2008) : “The Classical Jungian School”,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2nd Ed,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Jacoby M(1984) : *The Analytical Encounter : Transference and Human Relationship*, Inner City Books, Toronto.
- Jung CG(1935) : CW 18, *The Tavistock Lectur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46) : CW 16,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7) : *C.G. Jung Speak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Makari GJ(1994) : “Toward An Intellectual History of Transference 1888-1900”, *Psychiatr*

- Clin North Am*, 17(3).
- Meier CA**(1959) : “Projection, Transference, and The Subject-Object Relation in Psychology”, *J Analyt Psychol*, 4(1).
- Minder B**(2001) : “Sabina Spielrein. Jung’s Patient at The Burgholzli”, *J Analyt Psychol*, 46(1).
- Perry C**(2010) :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New York.
- Samuels A**(2006) :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The Handbook of Jungian Psychology*, ed. By Papadopolus RK,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_____ (2008) : “New Developments in the Post-Jungian Fiel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ung*, 2nd Ed, ed. By Young-Eisendrath P, Dawson 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Steinberg W**(1988) : “The Evolution of Jung’s Ideas on The Transference”, *J Analyt Psychol*, 33(1).
- Von Franz ML**(1993) : “Some Aspects of The Transference”, *Psychotherapy*, Shambhala, Boston & London.
- Wiener J**(2004) :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 Contemporary Perspectives”, *Analytical Psychology*, ed. By Cambray J, Carter L, Brunner-Routledge, Hove and New York.
- _____ (2009) :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exas A&M University Press, College Station.

Shim-Sŏng Yŏn-Gu 2014, 29 : 2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ransferenc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ang Ick Lee**

‘Transference phenomenon’ is considered as a essential feature in psychotherapy as well as psychoanalysis. But there is much difference i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for ‘transference phenomenon’ among various psychoanalytical schools. In general, the depth psychological studies for ‘transference phenomenon’ are mainly from the psychoanalytical view of point but relatively sparse from the analytical psychological view of point which has more holistic and deeper understanding for human psyche. So this article was intended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ransferenc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nd tried to make an understanding for its meaning.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transference phenomenon’ was investigated from the view before Jung and after Jung, with Jung’s view in the center. Then it was made clear that ‘transferenc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could be understood by several characteristic aspects. It was suggested that a careful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woodcuts’ pictures in *Rosarium Philosophorum* including a proper interpretation of its posterior part to which Jung didn’t refer in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be devoted to the genuine understanding of ‘transferenc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afterwards.

KEY WORDS : Transference phenomenon · Analytical psychology · Understa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